

하종오 시에 나타난 탈북자 형상

- 탈북자, 여성 그리고 분단 생태계

이상숙*

차례

1. 서론
2. 자본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 탈북자와 분단 생태계
3. 단정, 공감, 연민의 프레임 : 탈북여성과 젠더 생태계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하종오 시에 나타난 탈북자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하종오는 탈북자를 전 지구적 자본주의, 아시아 경제 구도 안의 노동자로 인식한다. 또 배제와 차별로 탈북자를 대하는 자본주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포착한다. 탈북자 중에서도 사회적, 성적 약자인 탈북여성에게 더해진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해 하종오는 공감과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와 같은 소외된 이에 집중하는 이러한 하종오 시의 행보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있다. 그러나 분단, 농민, 노동, 자본 등 한국사회의 현안에 예민하고 꾸준하게 대응해온 하종오의 시는 분단생태계 안에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계를 보여준다. 분단생태계란 남과 북의 경제적 차이에서 시작된 위계적 인식이 남북 주민에게 적용되어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강화되어 가는 갇힌 시스템이다. 하종오의 시에서 분단생태계는 탈북자와 탈북여성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탈북자는 굶주림이 일상인 나라에서 온 가난한 노동자, 노동시장의 위계에서 맨 아래에 위치

*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자유전공 부교수

한 하층 노동자, 가족도 없고 물려줄 유산도 없는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형상화되고 탈북여성은 주로 성적으로 침해받고 고통당한 사람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우리 사회에 분단생태계가 엄존하기에 그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하종오의 시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문제는 깊이있는 성찰이나 비판적 감각없이 피상적으로 시화(詩化)된 탈북자 형상이 분단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침해당한 여성성으로만 상상되는 탈북여성은 분단생태계 안에서도 젠더생태계라는 한 겹 더해진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다. 하종오의 시에서 탈북자, 탈북여성들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획일화되고 고정된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한계를 보이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편협한 인식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 성찰과 고민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탈분단, 탈북자, 탈북여성, 분단생태계, 탈북문학, 현대시

1. 서론

이 논문은 하종오 시에 나타난 탈북자¹⁾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종오는 2000년대 이후 시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탈북자, 북한주민 등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 논문은 그 중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시적 형상에 집중하여 살펴 볼 것이다. 등단 초부터 분단, 농민, 노동자와 자본주의

1)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탈북인, 탈북민,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지칭하는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으로 정한 공식적인 호명은 ‘북한이탈주민’이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된다. 시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 논문에서는 ‘탈북자’로 지칭한다.

를 주제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며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자, 북한주민, 통일로 이어지는 시적 여정을 보인 하종오 시에서 ‘탈북자’에 대한 고찰은 그의 시 전체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 하종오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현실 담론에 꾸준히 집중한 시인이기에 그의 시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리얼리즘 시의 맥락을 살펴보는 일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흔히 탈북자를 ‘먼저 온 통일’이라 한다. 북한의 사회와 체제를 경험한 그들이 남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미래에 도래할 통일의 국면에서 함께 해결해야할 예상 문제들이기도 하다. 탈북자와 북한주민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를 대하는 시선에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북한’, ‘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문화적 포용, 정서적 이해, 일상의 소통을 반영하는 문학의 현황과 역할을 점검하는 것은 탈북자 3만 명 시대인 오늘의 현실적 문제이자 미래의 과제로써 필요하다.

‘탈북’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개인적 사건이지만, 국경을 넘는다는 면에서 국제적이고 정치적 현안이며, ‘북한’을 떠나 ‘남한’을 택한다는 면에서는 ‘분단’의 서사이며, 민족의 이주와 정착이라는 면에서는 디아스포라의 현상이다. 중층의 내포를 가진 ‘탈북’의 주체이자 대상인 ‘탈북자’를 형상화한 ‘탈북문학’ 역시 여러 층위로 정의된다. 탈북을 주제로 한 문학, 탈북자를 형상화한 문학, 탈북자가 창작한 문학 등이 그것이다. 아직은 매 논의마다 범주를 한정하고 정의하며 시작해야하는 혼란은 있지만 문학 분야에서도 ‘탈북문학’은 현재 다양하게 창작되고 또 논의되고 있다.²⁾

2)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2집, 한국문학회, 2009; 강정구, 『탈북이주민(脫北移住民) 문화의 시적 수용—탈북이주민 시의 개념과 특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3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8; 박덕규, 이성희 외,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41~130쪽;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14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12;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 소설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12; 김소련, 『탈북여성을 향 한 세대의 시선』, 『여성문학연구』 41호, 한국

작품의 수나 창작자의 다양성, 문학적 성취면에서 시보다는 소설에서의 성과가 더 두드러진다. 탈북문제를 다룬 많은 소설과 탈북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들은 우리 사회의 ‘탈북’, ‘탈북자’ 문제에 의미있는 질문들을 던져 주었다. 이에 비해 시 분야에서는 작품이나 논의 성과가 소략한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입국자들』(산지니, 2009), 『남북상징어 사전』(실천문학사, 2011), 『신복한학』(책만드는집, 2012), 『남북주민보고서』(도서출판 b, 2013), 『세계의 시간』(도서출판 b, 2013)을 통해 꾸준히 탈북자에 대한 시적 형상화를 보여준 하중오의 시에 나타난 ‘탈북자’에 대해 살펴본다.

2000년 이후 하중오는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중국교포, 결혼이주 여성 등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집중했다.³⁾ 『아시아계 한국인들』에서는 한국인이 된 외국인과 한국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인 그들의 삶을 담아냈고 『입국자들』 이후의 시집에서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남북주민에게 통일이 무엇인지,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마음은 어떨지에 집중했다. 한국사회의 ‘소외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탈북자, 북한주민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소위 ‘고난의 행군’ 이후 급증한 탈북자들이 남한의 하층 노동계층으로 유입되면서 노동 시장에 새로운 한국인 ‘입국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북한을 벗어나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은 명백한 분단체제가 낳은 ‘새로운 입국자’가 되어 사회적, 경제적, 이념적 차원에서 생성된 ‘분

여성문화회, 2017; 배개화, 『한 탈북 여성의 국경 넘기와 초국가적 주체의 가능성』, 『춘원연구학보』 11호, 춘원연구학회, 2017.12; 이상숙, 『탈북시에 나타난 시쓰기의 역할과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46집, 아시아문화연구소, 2018.4.

3) 하중오는 1975년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다. 첫시집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창작과 비평사, 1981) 출간 이후 분단, 통일, 농민 등 사회 문제에 밀착한 작품을 발표했다. 『반대쪽 천국』(문학동네, 2004), 『지옥처럼 낮선』(랜덤하우스, 2006), 『국경없는 공장』(삶이보이는창, 2007), 『아시아계 한국인들』(삶이보이는창, 2007), 『입국자들』(산지니, 2009), 『제국 - 諸國 또는 帝國』(문학동네, 2011)에서는 한국 이주민 노동자를 세계의 노동자, 세계의 난민 측면에서 자본과 시민의 문제로 파악한 시들을 보여주었다.

단생태계'의 프레임 안에 편입된다.

분단생태계는 남북의 분단으로 형성된 편견, 고정관념으로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위계질서가 생태계와 같이 작동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⁴⁾ 전영선과 정진아는 남북의 주체들이 서로 만들어내는 분단, 탈분단, 통일 과정의 환경과 관계에 생태계의 개념을 활용했는데 이 개념은 현재 한반도 구성원 사이의 편견, 소통과 이해 부재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유용하고 적절하다. 정진아는 분단생태계가 분단에 의해 만들어져 남북대결 구도로 강화되었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더 공고한 것으로 만드는 속성을 지닌다고 했다. 남북의 관계, 북한,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주체들의 목소리는 기존 질서 유지 세력들에게 역공을 당하고 좌절하지만⁵⁾ 그들에 의한 분단생태계의 균열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이 논문은 이들의 논지에 동의하며 여기에 하종오시를 통해 포착한 탈분단 주체와 타자화된 주체들의 위계, 즉 마치 먹고 먹히는 생태계 먹이사슬과 같이 고착된 인식과 시선에 갇힌 관계의 의미를 더해 '분

4) '분단 생태계의 개념은 박민철, 전영선, 정진아의 논의를 거쳐 제기된 것이다. 박민철(『한반도 분단극복과 생태주의의 결합: '통일-생태철학' 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론』, 『서강인문논총』 4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은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전체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계(系, ecosystem)를 형성한다는 일반적 의미의 '생태계' 개념을 한반도의 분단과 연결하여 논의했는데 전영선(『통일문제의 생태주의적 인식과 문화번역의 가능성』, 『통일인문학』 70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은 여기에 통일은 남북의 다양한 주체의 사회문화교류와 문화번역이 필요한 유기적 문제라는 논의를 더해 통일과 생태주의를 사회문화적 문제로 전환시킨다. 정진아(『'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 <남북청년통일실험-어서 오시라요>에 대한 악성댓글 사건』, 『민족문화연구』 76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8)는 이들의 논의를 이어 받아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체제와 구조, 그것을 넘어서려는 주체들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단생태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정진아의 분단생태계는 주체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개방성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자 통일생태계로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5) 정진아, 위의 글. 1990년대 이후 급증한 탈북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며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분단생태계의 균열을 일으키면 새로운 주체들이 역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KBS 방송 프로그램 <남북청년 통일실험-어서 오시라요> 출연진에 대한 댓글 공격을 통해 논의했다.

단생태계'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탈북여성들은 여성성을 침해받은 존재로 한정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 이전에 '성적 침해 받은 피해자로서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에 갇힌 존재'로 인식되며 또 하나의 경계에 갇혀있다. 탈북자로 감당해야하는 분단생태계와 여성이기에 덧씌워진 젠더생태계라는 여러 겹의 프레임 안에서 탈북여성들은 철저히 수동적이며 낙인찍힌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하중오 시에 대한 대개의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자에서 포착한 '타자', '타자성'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속한 한국의 자본주의 안에서 이들을 타자화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준 리얼리즘 시로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추상적이고 고정적인 관찰자 시선에 갇혀있는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중오의 시집을 꾸준히 따라 읽으며 다문화, 분단, 디아스포라 등의 관점으로 분석한 류찬열은 '주체와 타자', '시선의 폭력', '소통'을 중심으로 하중오의 시를 평가하며, 하중오의 시가 열등한 타자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으면서 주체와 타자의 상호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시가 다소 추상적임을 지적한다.⁶⁾ 다문화 주체를 다룬 『입국자들』과 『제국 - 諸國 또는 帝國』에서 전지적 화자의 일반적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⁷⁾ 하중오의 탈분단 3부작 『남북상징어 사전』, 『신북한학』, 『남북주민보고서』와 조해진의 소설 『로기원을 만났다』(창비, 2011)을 비교하면서 조해진이 잠재적 디아스포라라는 인식과 자아의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면 하중오는 분단과 탈북자문제를 다국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역사적 경험, 일국적 시선이 아닌 국제적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평가했다.⁸⁾ 박

6)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 『국제어문』 44집, 국제어문학회, 2008.12.

7) 류찬열, 「하중오 시에 나타난 다문화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1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10, 291쪽.

8) 류찬열, 「분단과 탈북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다문화콘텐츠연구』 18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5.4.

지해는 하종오의 시가, 다문화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문화성에 갇힌 한국사회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하종오가 이주이민자들의 삶을 부정하고 불행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만 형상화하여 독자들의 고정된 시선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다.⁹⁾

고명철은 『제국 - 諸國 또는 帝國』이 “한국문학이 일국적 문제들 안에서만 다뤄지는 (탈)근대의 문제들을 지구적 시야 속에서 총체적으로 응시하고” 있으며¹⁰⁾ 『신북한학』이 남북의 통일이 보장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는 하종오식 리얼리즘의 진경(珍景·眞境)이라 평가한다.¹¹⁾ 리얼리즘 시로서의 하종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저항시와 이야기시로 연결된다. 장성규는 『남북상징어사전』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 탈분단 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남북한 인민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탈북인민, 이주노동자, 하층여성, 제 삼세계 인민 등 주변부 인민들의 삶에 천착한 2000년대 저항시의 어법’으로 의미있다고 높게 평가했다.¹²⁾ 노지영은 『남북주민보고서』의 시들을 분석하며 하종오가, 세계 주민들을 상상하는 ‘이야기시’로서 ‘세계자본주의와 남북의 히스테리와 연동되는 지점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소수자들과 타자들에게 나아간다고 했다.¹³⁾ 차성연은 하종오의 시작(詩作)이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름없는 타자로 살아가는 주변국 하위 주체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작업’인 동시에 ‘지금 여기의 특수한 상황인 분단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고독한 발화’라는 점에서 소중하다고 했다.¹⁴⁾

9) 박지해, 『하종오의 시 세계에 나타난 다문화성과 그 인식의 한계』, 『철학과 문화』 23집, 철학문화연구소, 2011.12.
 10) 고명철, 『제국(諸國)의 공존, 제국(帝國)의 부재』, 『제국-諸國 또는 帝國』 해설, 문학동네, 2011, 146쪽.
 11) 고명철, 『하종오식 리얼리즘의 득의(得意) - 탈분단과 지구적 시계(視界)』, 『신북한학』 해설, 책만드는집, 2012, 124~141쪽.
 12) 장성규,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 탈분단시의 가능성』, 『남북상징어사전』 해설, 실천문화사, 2011, 145~165쪽.
 13) 노지영, 『탈분단 연작시집 3부작, ‘너나들이’의 이야기시』, 『남북주민보고서』 해설, 도서출판 b, 2013.

백지윤은 다문화의 한 부류로 탈북자의 시적 형상을 논의하며 하종오가 자본의 논리와 배제의 시선으로 힘겨운 삶을 사는 탈북이주민의 현실에 주목하고 남한 자본주의와 시선을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¹⁵⁾ 김동명은 하종오의 시에 나타난 초국적 이주자들로 형성되는 하위위계화 문제의 대안적 사유로써 한 국가의 국민인 동시에 세계 속의 사회 존재로 인식하는 세계시민주의적 생태주의를 제시했다.¹⁶⁾ 박윤우는, 아시아계 입국자들에게 가해진 자본과 차별의 논리가 탈북자들에게도 가해지는 상황에서 하종오의 시가 탈이념과 민족의식의 재구성이라는 제 3의 관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¹⁷⁾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아래 노동의 유입으로 형성된 다문화 사회, 여기에 탈분단과 통일이라는 민족의식의 재구성을 요구받는 상황을 타자화된 소외된 소수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종오 시에 주어진 ‘주체와 타자의 소통 가능성’, ‘리얼리즘의 진경’, ‘이야기시의 가능성’, ‘2000년대 저항시’라는 선행연구의 평가는 온당하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동시에 그의 시가 극복하지 못한 ‘추상성’, ‘고정된 시선’으로 지적된 비판과 한계를 분단 생태계의 개념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하종오가 치열하고 진지하고 꾸준히 자본주의와 분단, 다문화에 대한 시적 여정을 걸어온만큼 그의 시가 드러내는 현실과 그 한계는 곧 도래할 탈분단, 평화와 공존, 통일의 시대 우리시가 맞이할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리즘 시인 하종오의 한계는 곧 우리사회의 인식적 수준의 한계와 편견일 것이다. 탈북자가 먼저 온 통일일 수 있듯 하종오의 탈분단 연작의 탈북

14) 차성연, 『지구 공통의 시간, ‘탈분단’을 상상하는 ‘차이’의 시간』, 『세계의 시간』 해설, 도서출판 b, 2013, 115~132쪽.

15) 백지윤, 『한국현대시의 다문화 수용 양상 -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63~69쪽.

16) 김동명, 『하종오 시에 나타난 세계시민주의적 생태주의의 복잡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68집, 한국문학회, 2014.12.

17) 박윤우,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다문화사회의 가치인식 방법 연구』, 『구보학보』 18집, 구보학회, 2018.6.

자 형상은 먼저 온 통일 시로써 우리 시의 방향을 선도하는 리얼리즘일 것이다.

2. 자본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 탈북자와 분단 생태계

『반대쪽 천국』, 『국경없는 공장』, 『아시아계 한국인들』에서 하종오는 ‘노동자’와 ‘노동’이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아닌 아시아 주변국과 그 이상인 지구적 시스템에 의해 이동하고 배치됨을 보여주었다. ‘노동’의 수요를 따라 움직이는 ‘노동자’의 한국 이주와 그들의 삶에 주목하면서 이른바 ‘다문화’로 지칭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이 시적 소재로 등장한다. 『입국자들』에는 입국/이주 노동자의 한 부류로서 탈북자 형상을 담았고 『세계의 시간』에는 아시아를 벗어나 전 세계의 노동 시장과 연결되어 한국에 들어 온 세계의 노동자와 탈북자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자본주의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남북상징어 사전』, 『신북한학』, 『남북주민보고서』에서는 통일시대로 주제를 확장하며 탈북자, 북한주민, 통일 남북한 주민의 다양한 일상에 대한 상상을 보여주었다.

한족의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 다니던
 조선족 최수철 씨(남, 25세)
 봉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국의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 취직해 떠났다

조선족 최수철 씨의 동생이
 빈자리에 지원했으나 뽑히지 못했고
 봉급이 더 싼 북한에서 온 노동자
 김태영 씨(남, 25세)를 비롯한
 몇 명이 채용되었다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플라스틱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조선족 최수철 씨는 자신이 만든 물건보다
값이 싸으므로 사 쓰지 않을 수 없었지만
김태영 씨와 북한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
자신들이 만든 물건도 사 쓰지 못했다

조선족 최수철 씨의 동생 역시
한국의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 취직해 떠나서
한족의 플라스틱 가공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을 받았다

-『형제』 전문 (『남북주민보고서』, 도서출판 b, 2013, 116~117쪽)

이 시에는 중국 공장과 한국공장, 조선족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소비자가 형성하는 선명한 위계가 드러나 있다. 조선족 노동자는 중국 공장보다 임금이 높은 한국 공장으로 떠나고 그 자리를 조선족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은 북한 노동자가 채운다. 한국-중국-북한 순으로 낮아지는 임금으로 표상되는 자본의 흐름과 일치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얻는 임금은 그들의 구매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노동하며 임금을 받는 조선족 노동자는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 제품을 살 수 밖에 없고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그나마도 살 돈이 없다. 공장노동자의 노동이라는 동일한 조건이 노동의 공간이 달라지면 다른 가치가 되고 그 가치는 북한-중국-한국 순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임금을 따라 북한-중국-한국 순으로 이동하지만 그들의 구매력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한 계(系)에 노동자들은 살아간다. 이것이 세계의 자본/자본주의의 생태계이다. 임금을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해도 그들은 노동으로 자본을 얻지 못한다. 자신이 만든 물건의 구매자가 되지 못한 그

들은 다시 더 낮은 임금 피라미드에 속한 노동자가 만든 물건을 사야한다. 이런 사정은 조선족 최수철 씨든 북한 노동자 김태영 씨든 다를 바 없다. 그렇게 그들은 더 높은 임금을 따라 순환하는 노동자의 생태계와 더 싼 상품의 구매로 순환하는 구매력의 생태계에 속해 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순환하는 두 흐름이 형성하는 첨예한 이 생태계에서 노동자들은 조선족 최수철 씨든 북한 노동자 김태영 씨든 너나 구분할 것 없는 ‘형제’이다.

하종오는 북한 노동자가 세계자본주의의 생태계 안에서 최하층을 임금 노동자로 편입되는 것을 포착한다. ‘외화벌이 노동자’ 이든 ‘탈북 노동자’ 이든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노동자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자본과 노동 생태계의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주민인가 자본주의 시민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모두 세계 노동자의 범주에 있다. 그 중 노동력 수출 차원이 아닌 ‘탈북’하여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탈북 노동자’가 미래에 한국에 입국한다면 그들은 자본주의 생태계뿐 아니라 전혀 다른 생태계인 ‘분단생태계’에 편입되며 매우 복합적인 생태계에 놓이게 된다.

한국이라는 세계자본주의의 아래 노동의 제공자로서 생태계 최하층에 유입된 탈북노동자에게는 수 십 년간 대립한 ‘적국’에서 온 ‘적’이라는 반감지 않은 획일적 정체성의 편견이 한 겹 더 씌워진다.

김철민 씨(남, 43세)는 공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탈북자라고 하면 외면당하기에
조선족이라고 자기소개를 한다

일제 때 만주로 건너갔다가 오가지 못한
조상을 둔 후손을
육이오전쟁 때 북한에 남았다가 오가지 못한
조상을 둔 후손보다

더 가깝게 여기는 남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김철민 씨는 무조건 거짓말을 한다

북한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별별 짓 다한

김철민 씨는 먹고 살 수 있다면

조상을 북한인이 아니라

조선족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남한 주민들이 거짓말을 쉽게 믿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진 않는다

김철민 씨는 탈북자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 땐 북한에서 온 동료라고 여기다가

나쁠 땐 적국에서 온 적쯤으로 취급하는

남한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순 없다

-『거짓말』 전문 (『남북주민보고서』, 도서출판 b, 2013, 76~77쪽)

김철민 씨는 ‘미리 온 통일’로 불리는 탈북자이다. 그러나 김철민 씨의 삶을 통해 미리 본 미래의 통일은 씁쓸하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보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일 맡기기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탈북자를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공산주의자로 적대시하면서 선뜻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상들의 우연한 선택으로 주어진 북한이라는 국적과 운명적으로 처해진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것뿐인데 남한 사람들은 그런 김철민씨를 ‘외면’하고 ‘적국에서 온 적쯤’으로 대한다. 김철민 씨는 그 적국에서 탈출했기에 더 이상 적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남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공산주의자로 생각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이방인으로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지만 오히려 더 멀게 느끼고 기피하는 남한사람들을 김철민 씨 역시 똑같이 대한다. 출신을 속이는 거짓말은 스스로 신뢰를 거

부하고 관계 맺기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김철민 씨의 거짓말을 듣는 남한사람들은 김철민 씨에게 거부당한 것이다. 북한에서건 남한에서건 살기 위해 못 할 짓 없고 생각한 그였지만 그는 이제 탈분단 시대의 한국인이 되기보다 스스로 분단과 아무 관련 없는 외국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¹⁸⁾

김철민 씨의 쉬운 ‘거짓말’은 남한사람들과 탈북자를 서로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외면과 적대가 거짓말을 낳고 그것이 다시 편견을 낳는 관계 안에서 신뢰는 생길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김철민 씨는 남한 사람들이 가지는 북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분단 생태계 안에 갇힌 것이다.¹⁹⁾ 그래서 김철민 씨는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로 조선족이라고 해도 김철민 씨한테 큰 관심이 없는 남한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들어 넘긴다. 김철민 씨가 조선족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없는 피상적인 사이이기 때문이다.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넘어가고 아무 일 없으니 다시 ‘무조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과정으로 관계는 생겨날 수 없다. 관계란 신뢰와 관심 그리고 적어도 일관되게 대하는 태도로 형성되는데,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는 주체들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생태계 먹이사슬의 어느 층에 있던 이런 관계는 이롭지 않다. 위계가 곧 단절이 된다 면 사회는 어떤 형식이든 계(系)로 순환하며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김철민 씨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들으며 일관성 없는 태도로 신뢰를 쌓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남한 사람들도 함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관계의 피상성을 드러내고 강화하는 분단 생태계의 모순에 걸려 든 것이다.

공장 노동자로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 일하지만 그들이 관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둘 사이의 ‘무관심’ 과 ‘소통의 부재’때문이다. 조선족이라

18) 이상숙, 『탈분단 시대, 미리 온 통일』, 『계간 서정시학』 28집 3호, 서정시학, 2018.9, 149~158쪽.

19) 정진이는 위의 논문에서 분단생태계가 분단에 의해 만들어져 남북대결 구도로 강화되었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더 공고한 것으로 만드는 속성을 지닌다고 했다.

는 소개에 남한 사람들이, 고향은 어떤 곳인지 고향에서는 무슨 일을 잘 했었는지 왜 조상이 중국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물었다면 김철민 씨는 쉽게 조선족이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북한에서 왔다는 말에 ‘북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사회주의에 살아보니 어땠는지? 북한 고향은 어떤 곳인지? 북한에서도 공장에서 일했는지? 남한에서 살기는 어떤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 탈북,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수정되었더라면, 기분따라 다르게 지칭하며 김철민 씨의 민족 정체성을 흔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본주의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한국인과 ‘입국한 한국인’ 사이에는 자본에 의한 유사 계급과 분단생태계로 강화된 편견과 고정관념, 이해와 소통 부재라는 현실이 엄존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강화와 이해와 소통의 부재 현상은 여러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인식이다. 『독상』, 『별미』, 『화전(花煎)』, 『타국』, 『비내리는 날』(이상 『입국자들』), 『늙은 직장인 허종오 씨』, 『방북의 방식』, 『아무개씨의 퇴근』, 『도보 귀향』(이상 『남북상징어 사전』), 『신북한학 입문, 탈북기념일』, 『그 여자의 봉양』(이상 『신북한학』), 『뜨든 소문』, 『구인』(『남북주민보고서』)의 탈북자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을 피해 탈북했지만 여전히 그 기억에 사로잡힌 이들로 드러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고 그때부터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북한에서 식량난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풀뿌리를 찾아 헤매고 딸을 팔아넘기고 이사자를 먹으며 버틴다는 흉흉한 소문 수준의 식량난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라 하면 ‘식량난’을 떠올리고 탈북자들은 배고파서 온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통일’을 위한 이해와 소통을 내걸고 탈북자를 출연시켜 북한의 참상을 과장하고 선정적으로 연출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가정파탄, 범죄, 사회부적응 등 탈북자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만을 전달하는 언론에 의해 탈북자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수정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다.

우리에게 ‘탈북인’은 극심한 식량난과 억압적 체제에 견디지 못하고 목

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고생 끝에 남한 온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다. 1990년대 대량 탈북시기와 달라진 현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탈북자 남성은 지독한 배고픔 때문에 가족을 두고 탈출한 사람, 젊은 이는 국경지역에서 구걸하던 꽃제비, 여성은 강제혼과 인신매매의 트라우마를 겪은 상처받은 영혼으로만 상상된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북한주민의 이미지를 묶어두고 끔찍한 그곳을 탈출한 이들과 그들을 도와주는 남한 사회라는 분단 시대의 프레임을 여전히 반복하고 강화하는 미디어와 언론의 책임이 크다.²⁰⁾ 한편으로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여전히 인권불모지이고 빈곤국가이며 위협적 군사국가이지만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긴요한 것은, 탈북자들이 남한 정착 2~30년을 맞으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음과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들의 생활,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문학적 성찰일 것이다.

북한 탈출자 하종오 씨가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남한 토박이 하종오 씨를
 우연히 만나 통성명하다가
 동명이인인 걸 알고 반가워했으나
 서로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멧쩍어하며 돌아섰다

20) 권금상에 따르면 고정관념과 편견은 중편의 탈북인 프로그램으로 유포되는데, 일반적인 탈북인의 서사는 ‘어려웠던 북한에서의 삶’, ‘이념으로부터의 탈주자’라는 전형적 재현의 틀을 견지하며 한국사회 우위의 프레임을 유지한다. 언론이 주로 다루는 탈북인 이슈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탈행위자. 범죄, 사기, 성매매’ 등이다. (『남북한 미디어의 탈북인/탈북탈남인 서사 - 미디어가 구성하는 분단의 현 재성과 윤리』, 『통일인문학』 73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3, 86~91쪽.)

북한에서 하중오 씨가
결코 공평한 국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남한을 동경했을 때
남한에서 하중오 씨가
아직 폐쇄된 국가가 있다는 걸 알고
북한을 경원했을 때
이 세상에 자신과 다른 하중오 씨가 있어서
더 잘살거나 더 못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중오 씨들이 헤어져 집에 돌아가서
무엇이 같은지 무엇이 다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은 건 성명이라는 것이고
다른 건 출신 국가라는 것이었다
아니었다 다른 것이 더 많았다

남한 토박이 하중오 씨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니고
자식을 키우고
물려 줄 유산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탈출자 하중오 씨는
실직자로 구인 광고지를 뒤적이고
가족을 버려두고 왔고
상속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다

-『하중오씨들』 전문 (『남북상징어 사전』, 실천문학, 2011, 16~17쪽)

이 시에서 우리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확인할 수 있다. 탈북자는 직업을 찾아 헤매는 실직자, 남한을 동경하여 탈북한 사람, 가족을 버

려두고 왔고, 상속할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이 시에는 오늘날 남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꺾진성과 함께 편견과 고정 관념에 갇힌 탈북자에 대한 상상과 이해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정규직과 실업자라는 자본 생태계의 위계가 남한 토박이 하종오와 북한 탈출자 하종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설정되어 있다. 자식이 있고 없음, 물려줄 유산이 있고 없음이라는 피상적 차이 또한 단정적으로 제시된다. 이것들이 동명이인 하종오 씨들을 몇쩍게 했던 ‘다른 신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할 것이라는 생각, 탈북자들은 가족을 버리고 온 비정한 사람들이라는 분단의 편견은 무반성적으로 우리에게 스며들었고 분단의 리얼리즘을 체득한 하종오 시를 통해 드러난다. 또 탈북자들은 가난하며 앞으로도 가난해서 남겨줄 유산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 남북의 차이를 ‘신분’의 차이로 고정하는 문제적인 상상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탈북자는 아시아계 노동자처럼 노동의 이동으로만 인식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탈북’을 결정한 개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과 사유, 즉 그들 삶에 대한 존엄함을 인정하는 진중함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빈번히 쓰인 이 시의 ‘다른’이라는 표현은 전방위적으로 고정되고 강화되어 탈북자들을 그저 ‘다른 신분’의 집단으로 다시 ‘타자화’될 것이다.

1990년대 이전과 이후, 2000년대와 2010년 이후 탈북자의 탈북 동기나 유형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배고픔이나 억압적 정치가 탈북의 이유였다면 2010년 이후에는 빈곤 외에도 자녀교육, 돈과 삶의 질, 사회적 기회, 가족 결합 등이 주요한 탈북동기로 부상한다.²¹⁾ 탈북유형도 혼자 월경(越境)하여 중국을 떠돌다 남한에 들어오는 경우 못지않게 가족 단위 탈북이나 먼저 탈북한 사람이 가족의 탈북을 돕는 경우도 많고, 실제 가족이 함께 남한에서 사는 경우도 많다. 또, 남한에 입국한 후에 취업, 사업, 학업 등의 경제 활동의 기반을 닦아 여유있는 삶을

2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 83~84쪽.

사는 경우도 많다. 또 비정규직의 문제는 탈북자뿐 아니라 남한 주민에게도 큰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남한 주민과 탈북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족의 유무, 유산의 유무로 획일적으로 대비시킨 것은 하중오의 시적 설정이자 장치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와 설정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동갑내기 하중오씨들』, 『늙은 직장인 하중오 씨』, 『밥의 시간』(이상 『남북상징어 사전』), 『뜬 소문』(『남북주민보고서』)과 같은 시들에서 반복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오랫동안 소외된 한국인, 소외된 노동자 문제에 예리한 리얼리즘 정신을 보여 온 하중오 시인이 탈분단의 현실을 묘사하는 시에서 스스로 분단생태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탈북자에게 ‘다른 신분’이라는 표현을 하중오가 자연스레 용인한다면 그가 그려내는 통일된 미래의 남북주민의 모습과 일상에 대한 상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상징어 사전』, 『신북한학』, 『남북주민보고서』에 드러난 통일에 대한 하중오의 상상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일상의 남북의 평화로움에 주목하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 안에 자리잡은 남과 북의 차별은 좀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탈북자를 탈분단과 통일의 개개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에서 분단생태계의 극복은 시작될 것이다. 이 인정은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3만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은 일률적인 집단으로 보호되고 적응시켜야 하는 하층 신분 한국인이 아니다. 각자가 대등한 ‘하중오 씨’가 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국민으로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스스로 주체임을 드러내며 당당해져야 한다.²²⁾ 시인들은 탈분단 주체들 각자의 삶이 가진 개별성과 그 무거움에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인식된 집단에 가해지는 시혜적

22) 전영선, 앞의 글, 77쪽. 전영선은 한반도 통일과정과 생태주의적 결합을 몇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는데 그 중 통일 주체의 확장을 “남북의 다양한 주체들이 통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이거나 호혜적 차원이 아닌 주체의 상호성을 높여 가야 한다”고 했다.

이고 피상적이며 가벼운 상상은 또다른 폭력적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다.

3. 단정, 공감, 연민의 프레임 : 탈북여성과 젠더생태계

탈북자에 대한 이해에 자본 생태계와 함께 분단생태계를 극복하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탈북여성 형상화에는 더 예민하고 더 균형잡힌 시선이 필요하다. 탈북자를 ‘경제적 하위 계층, 가족을 버린 자, 한국사회 부적응자’로 인식하고 소비하며 그들을 온전한 한국인이 아닌 ‘다른 신분’의 그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탈북여성에게는 그 위에 ‘상처받은 여성’이라는 편견이 덧씌워진다. 탈북여성의 정착과 지원을 담당하는 많은 조사와 연구들은 그들이 탈북과정에서 침해당한 성적(性的) 상처와 트라우마에 집중했다.²³⁾ 실제 탈북여성들의 인권피해 실태가 상당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²⁴⁾ 트라우마의 드러냄과 치유를 강조하는 연구와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의 방향은²⁵⁾

23)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탈북민의 적응과 치유 이야기』, 경진출판, 2015, 339~373쪽; 박소연,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집 2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7; 김재영, 『탈북자의 상처와 치유』,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5호,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7.

24)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30쪽; 성경현,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집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25) 이덕화, 『탈북여성 이주 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2집, 현대소설학회, 2013;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 탈북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권 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11;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구보학보』 16호, 구보학회, 2017; 김소륜, 『탈북여성을 향 한 세계의 시선』, 『여성문학연구』 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배개화, 『한 탈북 여성의 국경 넘기와 초국가적 주체의 가능성』, 『춘원연구학보』 11호, 춘원연구학회, 2017.12; 이상숙, 『탈북여성시 연구의 의미와 한계-상처받은 여성(女性)과 형상화되지 못하는 트라우마』, 『현대북한

온당해 보인다. 하지만 상업적인 방송의 선정적 연출과 사건 사고 위주의 뉴스만을 전하는 언론에 노출되고 전과되면서 탈북여성의 이미지가 ‘탈북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겪어 정신적으로 피폐한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문제적이다.²⁶⁾ 많은 탈북여성들이 투옥이나 체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인신매매, 성폭력, 강제혼과 같은 외상²⁷⁾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탈북여성들을 그 고통의 경험자로 또 아직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피해자로 바라보고 시선은 ‘낙인’이자 또하나의 폭력일 수 있다. 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사회가 함께 하는 것과 그들 모두를 고통 속에 갇힌 이들, 진취적 삶을 살아가기 힘든 소극적 자아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최근 탈북자들의 탈북동기와 탈북과정이 다양한 것처럼 탈북여성 또한 모두 같은 일을 겪은 것도 아니기도 하며 그 트라우마가 탈북여성의 존엄성과 윤리성을 몰각하는 방향이어서도 곤란할 것이다.

젊은 여자가 식사주문 받으러 와서
 이복사투리를 쓴다면
 오십 년 전 전쟁 때 월남하진 않았으니
 탈북자라고 나는 단정한다
 처음에는 수저를 갖다놓고

연구』 21권 2호, 2018.8.

- 26) 장영은·박지훈, 『북한과 탈북자를 재현하는 텔레비전에 대한 수용자의 시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대한 수용자 해독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7호, 한국소통학회, 2015; 최윤희·김수연,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댓글에 나타난 남한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 PR의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15집 3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12; 황정미,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호 2집,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6.
- 27) 성정현, 앞의 글. 성정현은 탈북여성인 투옥, 도망, 체포, 인신매매, 성폭력, 차별, 배신, 죽음의 목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외상을 겪고 악몽과 수면장애, 회상과 기억의 반복, 경험의 회피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다음에는 반찬 접시들 갖다놓고
 마지막으로 밥과 국 갖다놓은
 젊은 여자는 주방 앞에 손을 맞잡고 서서
 뭔가 바라본다
 손님이 점심 먹든 말든 무관심한
 젊은 여자의 눈길 따라
 내가 창 밖 내다보니
 왼팔로는 어린애 들어 안고
 오른손으로는 우유곽 잡고는
 어린애에게 빨대 물린
 허름한 한 어머니가 걸어가고 있다
 젊은 여자가 북한에 두고 온 자식도 저만한가
 갑자기 밥맛없어지는데도
 끼니때 놓친 나는 숟가락 놓지 못한다

-「젊은 여자」 전문 (『입국자들』, 산지니, 2009, 24~25쪽)

시인의 젊은 여자의 이복사투리를 듣고 탈북자로 ‘단정’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라보는 허름한 어머니와 어린애의 모습을 “북한에 두고 온 자식도 저만한가” 생각한다. 사실이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갑자기 화자가 밥맛을 잃는 것을 보니 시인은 이미 그렇다고 ‘단정’한 것 같다. 사실 이 시에서 화자는 많은 단정을 하고 있다. 여자는 창밖의 ‘뭔가’를 무심히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창밖의 어머니와 어린애를 보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 어린 자식을 두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단정은 자식을 두고 남한에서 식당 일하며 살아가는 젊은 여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자연스레 연결된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생길 즈음의 식당 풍경과 그들에 대한 연민을 담은 이 시가 탈북자에 대한 배제, 거부, 차별과 같은 분단생태계와 관계없어 보일 수도 있다. 탈북

여성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공감의 감정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여성에게는 분단생태계와 함께 그 아래 존재하는 젠더생태계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 침해된 여성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개입된다.

‘탈북한 젊은 여자는 아이를 두고 나와 그 아이가 그리워 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이들은 불쌍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손가락을 놓치는 않았고 얇은 호기심으로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묵묵히 끼니를 채웠다. 이 부분에서 탈북여성의 애처로운 삶과 남한 주민의 일상이 공존하는 것이 분단 한국의 현실적 삶이라는 하중오의 통찰력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 시에 나타난 단정과 상상, 연민이 탈북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되어 반복된다면 이는 현실이든 시이든 문제적이다. 탈북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끔찍한 일’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전제된다면 시인의 따뜻한 연민, 단정, 상상은 탈북여성을 성적 침해를 받고 박탈당한 모성으로 대상화하는 사고는 강화될 것이다. 강제혼과 매매혼, 결혼을 했으므로 아이가 있는 어머니일 것이고 남한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보니 아이를 버리고 왔을 것이라는 인식은 그들을 ‘박탈당하고 결핍된 존재’로 한정한다. 이것은 탈북자와 탈북자를 바라보는 남한 주민들이 분단생태계의 한계에서 인식되고 인식하듯이 탈북여성은 그 안에서도 분화된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젠더생태계 간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정과 같은 피상적인 상상은 종종 문득, 무심히 ‘뭔가를 바라보는’ 행동과 ‘한데’를 내다보는 몸짓에서 시작한다. 문득, 무심한 그들의 행동을 북조선에서 도망쳐 베이징 교외 과수원에서 일하는 여자는 “만두 한 입 먹다 말고 한데 내다보며 북조선에 두고 온 어린아들 생각한다”(『과수』, 『입국자들』)고 믿으며 한정하는 것이다. 성적 유린이 대상이 되는 젊은 여자, 아이를 두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와 다른 자아로서 탈북여성은 상상되거나 형상화되지 못한다.

조상이 일제 강점기 때 조선에서 건너왔다지만

조선족 중년 사내 두 명과 강제로 동거했던

림선희 씨가 십여 년간 시도한 끝에
마침내 복사나무에 복숭아가 열릴 무렵 한국에 들어와
북조선 탈출 중에 겪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복숭아』 부분 (『남북주민보고서』, 도서출판 b, 2013, 30~31쪽)

림선희 씨는 탈북 후 십 여 년 간 떠돌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탈북하다 한족 사내에게 붙잡혀 팔려갔다 탈출하다 다시 다른 한족사내에게 잡혀 다시 다른 조선족 사내에게 팔려갔다. 북으로 송환될까하는 두려움과 생존을 위해 림선희 씨는 물건처럼 성적 대상으로 물건처럼 매매되었다. 탈북여성을 상품 취급하여 인신매매를 일삼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신상품』, 『남북상징어 사전』) 림선희씨에게는 더 없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없는 이야기’에 불과했다. 남한에서 인신매매와 강제혼은 탈북여성의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림선희 씨에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서사이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이며 계기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알고 있어 더 이상 ‘귀 기울여 듣는 이’ 없는 일반적 서사가 되어버렸다. 평범한 서사가 되었지만 림선희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을 감행했고 두 번이나 팔려갔지만 두 번을 탈출했으며 남한으로 입국한 용감한 ‘감행’의 서사이어야 할 것이다. 탈북여성들은 그들의 아픈 과거 이전에 탈북을 감행한 이, 즉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이들이다.

북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아닌 말로 젊은 여자가
한국에서 못할 일도 아니었다
북조선을 탈출한 후

이미 중국에서도
억지로 해본 짓거리,

그래야 살아남는다면
매춘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젊은 여자는 코웃음을 웃었다

- 「짓거리」부분 (『입국자들』, 산지니, 2009, 34~35쪽)

탈북여성들은 몸과 성을 침해당하며 외국을 전전하다 한국에 흘러들어 온 이들이 아니라 탈북, 탈출, 입국을 감행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이들이다. 이 젊은 여자는 남들만큼 일을 잘 못해 직장에서 잘리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쉽사리 돈 버는 길을 / 어렵사리” 알게 되었고 “나날이 자연스럽게 일”하며 살아남기 위해 “매춘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삶을 위해 하는 일 앞에 매춘이든 어떤 짓거리이든 할 수 있다는 말과 코웃음은 ‘젊은 여자 자신’, ‘우리 현실’, ‘시인’의 향하는 냉소를 담고 있다. 삶을 위해 억지로 어떤 ‘짓거리’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인 여자와 그 여자가 다시 억지 짓거리로 살아가야 하는 남한의 현실, 그의 코웃음을 옮겨야 하는 리얼리즘 시인의 모습 모두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짓거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즉 어떠한 윤리적 잣대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윤리의식이 없어도 되는 인간, 윤리의식 없어도 이해되는 인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이미 동등한 인간 범주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리의식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연민, 공감, 이해란 편견일 수밖에 없다. 탈북여성들은 살기 위해 그 ‘짓거리’를 해야하고,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해도 이해받을 수 있는 ‘윤리물각’의 존재로 용인되고 상상되는 것이 이미 배제와 차별의 조건이며 젠더생태계의 작동이다.

‘언제 아이 만날 순 있을까?’
여자는 어린 이들을 떠올리며
고개 들곤 남자를 쳐다보고
남자는 대답을 기다리며
고개 들곤 여자를 바라본다.

재배하우스 밖엔 함박눈이 내린다

여자가 북조선 떠나 떠돌다가
중국사내에게 몸 숨기고 살았을 때
출산한 적이 있는 줄 모르는 남자가
지금은 한 마을에서 이웃이 된 여자에게
칭혼하고 있는 재배하우스 안에서
채소들이 향긋한 풋내를 내뿜는다

재배하우스 밖엔 함박눈이 내린다

-『재배하우스』 부분 (『입국자들』, 산지니, 2009, 14~15쪽)

재배하우스 일하는 탈북여성에게 같은 마을에 사는 남자가 칭혼을 한다. 여자는 ‘이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데...’ 하며 씩씩하게 웃고 남자는 멧쩍어 웃는다. 여자는 탈북 후 중국 사내와 살다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떼어 놓고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이 시에는 칭혼 받은 젊은 여자가 이렇게 난감하리라는 상상과 젊은 여자의 과거를 모르는 또는 모르기에 남자가 칭혼했으리라는 단정이 전제되어 있다. 여자는 결혼은 곧 출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아이가 있으나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칭혼을 받아들이기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난감해한다. 중국사내와 살았던 자신의 과거는 여성으로서 문제적인 시간

이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시간은 어머니로서 문제적이다. 젊은 여자는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사내를 떠나고 한국 입국을 감행하며 스스로의 삶을 용기있게 선택한 사람이지만 이 순간에는 철저히 젊은 여자, 어머니로 성찰된다. 새로 만난 남자와 새로운 결혼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많은 조건 중에서 동거, 출산, 모성 외의 생각은 시인에게 포착되지 않는다. 여자의 씩쓰레한 웃음과 시선이 담은 숨겨진 사연과 걱정은 남자에게는 쪽 쓰러움과 수줍음으로 오해되고 있다. 청혼하는 남자가 여자의 과거를 모른다는 단정이 있어야 남자의 청혼은 가능하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자리한다. 그것이 남성 시인의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남녀구분 없는 현실의 것이라 생각한다.

여자가 청혼과 동시에 과거의 결혼, 동거, 출산을 연결하여 생각했다면 남자는 청혼과 동시에 젊은 여인과 함께할 앞으로의 결혼, 동거, 출산을 기대할 것이다. 그의 청혼에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있지만 여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 때문에 청혼하는 지금의 설렘과 정열은 불안한 것일 수 있다. 청혼을 하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시간,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할 두 사람 사이에는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와 잘못 이해되는 오해의 시선이 엇갈린다. 아름다운 시간의 시작으로 몰이해와 오해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함박눈 내리는 재배하우스 속은 두 젊은이의 사랑과 설렘으로 ‘향긋한 풋내’가 가득하다. 무턱대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만 탈북자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형상화가 하종오시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제 막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연인처럼 남한의 탈북자에 대한 시각과 탈북자의 남한에 대한 시각도 이제 막 진지하게 고민되는 시점이었을 것이다. 여자의 삶의 아픔과 경험을 들은 남자가 더욱 진지하게 청혼을 할 수도 있으며 여자는 용감히 다시 한 번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상상이 필요하다. 탈북여성의 고통스러운 과거보다 그가 감행한 선택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시선이 곧 분단 생태계와 젠더 생태계의 균열과 극복을 이끄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인식이며 리얼리즘 시인의 시적 대안

일 것이다.

위의 시에서 보듯 탈북여성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북한에 아이를 두고 탈출한 여성, 탈북 생활 중 중국 사내와 살며 아이도 낳았지만 남한으로 도망친 여성, 탈북 과정에서 매매혼과 강제 결혼으로 피폐해진 여성, 한족 사내, 조선족 사내와 강제 동거하다 탈출한 여성, 이미 험한 일을 많이 당했으므로 살기 위해서는 매춘도 할 수 있는 여성, 지난 과거 때문에 새로운 근거지에서 시작하는 연애와 결혼에 주저하는/주저해야하는 여성이 그것이다. 시인은 이를 ‘짓거리’로 표현한다. 위의 시들에는 2010년 즈음의 탈북여성의 현실에 대한 쫓긴한 관찰, 연민과 공감의 시선, 녹록치 않은 남한 사회 적응의 문제가 잘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시에서 대등한 주체로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여성으로 그들의 달라진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기대하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각자 다른 탈북 동기와 과정이 다를 뿐 아니라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자신들만의 삶과 인격을 가진 주체인 그들을 일률적 집단으로 취급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의 삶이 있고 그들의 삶 또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3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그들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 적응의 대상,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탈분단, 북한, 평화, 통일을 함께 수행할 당당한 ‘우리로서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4. 결론

하종오는 스스로의 역할을 “북한에서 태어나 도망쳐 온 사람들이 / 남한에서 하고 싶은 말을 상상해서 / 대신 시로 쓰는 짓거리는 /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책” 『나의 최선책』 (『신북한학』, 책만드는집, 2012, 84~85쪽.)과 “각국 노동자들과 북한 노동자들 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식통이 없어 그저 “상상력으로 슬그머니 다가가”(『소통과 상상력』, 『남북주민보고

서』, 2013, 114~115쪽.)는 것이라고 했다. 분단, 탈분단, 세계자본주의 시대에 그의 소명과 그의 시는 소중한 자산이다. 탈북자를 세계자본주의의 흐름 안에서 이주한 노동자로 바라보는 시선, 자본주의와 분단, 탈분단, 통일의 문제가 혼재된 뾰족한 현실로 탈북자를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역사를 지닌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하중오만큼 보여준 시인은 없기 때문이다.

분단생태계의 개념을 활용하여 탈북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재생산되고 강화되는 현실과 이를 형상화한 하중오의 시를 분석했다. 탈북노동자는 한국에 입국해서도 조선족이라고 거짓말해야할 만큼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데 같은 민족의 표상으로써 남북의 수많은 ‘하중오 씨’를 상상한 하중오의 시에서도 탈북자는 노동현장에서의 지위, 가족의 유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 신분’ 사람들로 구분되고 집단화되었다. 탈북여성을 강제혼과 인신매매와 같은 험한 과거를 가진 여성들로 획일화하며 연민과 공감의 시선을 보내는 현실을 분단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또하나의 생태계인 젠더생태계의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분단생태계 안에서 선정적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고정적 이미지로 굳어져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재생산되는 탈북자의 이미지는 그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 없이는 수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10년을 전후하여 쓰여진 그의 시는 당시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아냈고 탈분단이 가시화되는 현재에 그의 시와 당시의 현실은 또 한번 비판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 북미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현재 탈북자들이 ‘먼저 온 통일’로서 먼 훗날 통일을 함께 완성하는 대등하고 당당한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탈분단과 통일이 가시화되는 오늘날 하중오의 꾸준하고 예리한 리얼리즘이 분단생태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허무는 균형을 갖춘 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하종오, 『입국자들』, 산지니, 2009, 14~15쪽, 24~25쪽, 34~35쪽.
_____, 『남북상징어사전』, 실천문화사, 2011, 16~17쪽.
_____, 『신북한학』, 책만드는집, 2012, 22~23쪽, 84~85쪽, 110~111쪽.
_____, 『남북주민보고서』, 도서출판 b, 2013, 30~31쪽, 76~77쪽, 116~117쪽.
_____, 『세계의 시간』, 도서출판 b, 2013, 5~6쪽, 30~31쪽, 106~107쪽.

2. 단행본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탈북민의 적응과 치유 이야기』, 경진출판, 2015, 339~373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30쪽.
박덕규, 이성희 외,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41~130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83~84쪽.

3. 논문

- 강정구, 「탈북이주민문화의 시적 수용—탈북이주민 시의 개념과 특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 연구』 3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8, 9~28쪽.
고명철, 「제국(諸國)의 공존, 제국(帝國)의 부재」, 『제국-諸國 또는 帝國』 해설, 문학동네, 2011, 132~146쪽.
_____, 「하종오식 리얼리즘의 득의(得意) - 탈분단과 지구적 시계(視界)」, 『신북한학』 해설, 책만드는집, 2012, 124~142쪽.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2집, 한국문학회, 2009, 215~245쪽.

- 권금상, 「남북한 미디어의 탈북인/탈북탈남인 서사 - 미디어가 구성하는 분단의 현재성과 윤리」, 『통일인문학』 73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3, 73~112쪽.
-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 소설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12, 1~192쪽.
- 김동명, 「하종오 시에 나타난 세계시민주의적 생태주의의 복잡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68집, 한국문학회, 2014.12, 1~40쪽.
- 김소륜, 「탈북여성을 향 한 세계의 시선」, 『여성문학연구』 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09~143쪽.
- 김재영, 「탈북자의 상처와 치유」,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5호,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7, 79~95쪽.
- 노지영, 「탈북단 연작시집 3부작, ‘너나들이’의 이야기시」, 『남북주민보고서』 해설, 도서출판b, 2013, 125~149쪽.
-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 『국제어문』 44집, 국제어문학회, 2008.12.30., 281~301쪽.
- _____, 「하종오 시에 나타난 다문화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1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10, 265~286쪽.
- _____, 「분단과 탈북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다문화콘텐츠연구』 18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5.4, 47~67쪽.
-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14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12, 89~113쪽.
- 박민철, 「한반도 분단극복과 생태주의의 결합: ‘통일-생태철학’ 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론」, 『서강인문논총』 4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87~219쪽.
- 박소연,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집 2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7, 5~30쪽.
- 박윤우,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다문화사회의 가치인식 방법 연구」, 『구보

- 학보』 18집, 구보학회, 2018.6, 519~550쪽.
- 박지혜, 『하종오의 시 세계에 나타난 다문화성과 그 인식의 한계』, 『철학과 문화』 23집, 철학문화연구소, 2011.12, 33~53쪽.
- 배개화, 『한 탈북 여성의 국경 넘기와 초국가적 주체의 가능성』, 『춘원연구 학보』 11호, 춘원연구학회, 2017.12, 209~236쪽.
- 백지윤, 『한국현대시의 다문화 수용 양상 -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1~83쪽.
- 성정현,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집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117~131쪽.
- 이덕화, 『탈북여성 이주 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2집, 현대소설학회, 2013, 409~431쪽.
- 이상숙, 『탈북시에 나타난 시쓰기의 역할과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46집, 아시아문화연구소, 2018.4, 191~218쪽.
- _____, 『탈북여성시 연구의 의미와 한계-상처받은 여성(女性)과 형상화되지 못하는 트라우마』, 『현대북한연구』 21권 2호, 2018. 8, 128~163쪽.
- _____, 『탈분단 시대, 미리 온 통일』, 『계간 서정시학』 28집 3호, 2018. 9, 149~158쪽.
-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 탈북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권 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11, 261~288쪽.
-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구보학보』 16호, 구보학회, 2017, 517~542쪽.
- 장성규,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 탈분단시의 가능성』, 『남북상징어사전』 해설, 실천문화사, 2011, 145~165쪽.
- 장영은·박지훈, 『북한과 탈북자를 재현하는 텔레비전에 대한 수용자의 시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대한 수용자 해독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7호, 한국소통학회, 2015, 225~254쪽.

- 전영선, 「통일문제의 생태주의적 인식과 문화번역의 가능성」, 『통일인문학』 70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71~97쪽.
- 정진아,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 <남북청년통일실험-어서 오시라요>에 대한 악성댓글 사건」, 『민족문화연구』 76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8, 281~311쪽.
- 차성연, 「지구 공통의 시간, ‘탈분단’을 상상하는 ‘차이’의 시간」, 『세계의 시간』 해설, 도서출판 b, 2013, 115~133쪽.
- 최윤희·김수연,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댓글에 나타난 남한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PR의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15집 3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12, 187~219쪽.
- 황정미,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호 2집,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6, 311~346쪽.

Abstract

The Depi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Poetry of Jong-oh Ha

Lee, Sang-sook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oet Jong-oh Ha describes North Korean defectors in his work. In the era of global capitalism and of the cut-throat Asian economic structure, Ha paints the im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Koreans who cannot live as such. He depicts North Korean defectors as laborers who have an even worse reputation than foreign workers, and as women with a shameful past. In his poetry, they are treated poorly in the Asian labor market, but even after coming to South Korea, they remain unable to achieve great social or economic improvement in their lives. Ha also claims that Koreans tend to avoid hiring North Koreans even more than they do Korean-Chinese, and display prejudice agains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mplying that they might be damaged,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from forced marriage and human trafficking. As a result, in Ha's poetry,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fully recognized as Koreans, whether in the labor market or in everyday life. The image of them as a homogenous group separate from other Koreans is repeatedly employed in his work. This kind of perspective fundamentally arises from the stereotypes and closed-mindednes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North Korean defectors are people with whom communication is vital both for furthering the goal of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for enabling reconciliation

afterwards. Therefore, for Korean society and literature to maintain such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seems problematic. Before engaging in thorough discussion about Korean unification, the general Korean view of them and the role of literature in reflecting and disseminating such a view should be reconsidered.

Key words : Post division, North Korean Defectors, literature of North Korean Defectors, division ecosystem, Modern Poem of Korea

■ 본 논문은 2019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